

유럽형 아스팔트피니셔 AP-755

도로공사에서도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 무등포장중기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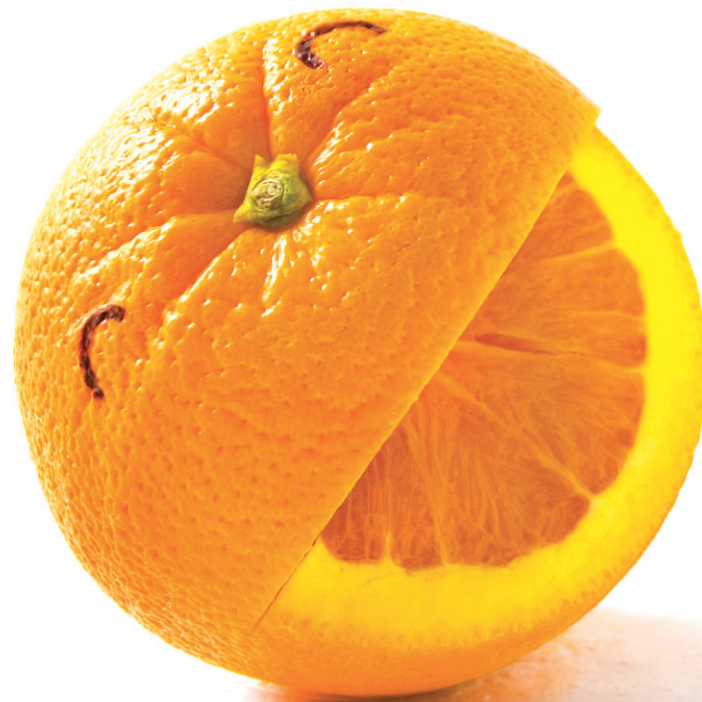
2007; 春 www.haein.com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머 지수가 높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세상은 어둡고 힘들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웃을 일 투성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희한해서 웃고, 슬픔이 극에 달해도 웃을 수 있잖은가? 그렇다. 이렇게 자기 분야의 일인자들은 모두가 뛰어난 유머 감각이 있고, 늘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다닌다. 슬픔을 기쁨으로 뒤집어 버리는 상쾌한 웃음이 어려운 '난국 돌파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웃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지...



당신의 인생을 바꿀 10초, 웃어라!



행복 **음** 03 프롤로그 | 04 Theme Essay | 06 Theme Space

교감 **음** 08 Haein Holic | 12 총력! 영업현장 | 15 멘토&멘티

16 정보DIY | 20 최고의 정보

감성 **음** 22 재테크 레슨 | 24 헤인 뉴스 | 26 헬스·웰빙 테크

CONTENTS

2007년 봄호(통권 255호) | 2007년 3월 29일 발행 | 1993년 10월 20일 등록(등록번호 바-2006호) |
발행 겸 편집인 권경희 | 발행처 주식회사 헤인 (www.haein.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02-3498-4500) | 기획 및 디자인 편집 디자인실 외곽(02-3447-7601) | 인쇄 대로인쇄(02-2278-0773)

니체는 가장 좋은 교육이 아이들에게 웃음을 가르치는 것이라 말했다. 웃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도 웃음은 보약보다 좋다고 하지 않았던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져서인가,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가다 혹은 거리를 거닐다가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라. 일상에 지친 그들의 모습에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웃음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웃기가 힘들어 TV나 영화를 보고서라도 웃고자 하는 이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안타깝게도 '웃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웃음' 그 자체가 상품화되어 지고 있다. 친절과 서비스를 강조하며 직장에서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 웃음이 우리 곁에 자연스럽게 머물고 있으니 말이다. 물건을 사러 혹은 업무 중에 우리는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는 나 혹은 당신을 발견하진 않았는가.

'웃음'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 바로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억지로 웃는 웃음도 엔도르핀을 돌게 해서 건강에 좋다고 한다. 하지만 진실성이 담긴 웃음과 어쩔 수 없이 웃는 웃음은 다르다. 진실한 웃음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생활관을 바꿀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웃다보면 성공도 따라온다

지난 해 '웃음의 파워'에 대한 TV 다큐멘터리에서 'fun경영'으로 성공한 진수테리를 봤다.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기업과 개인의 새로운 'fun경영'을 이끈 그녀를 보면서 인생을 좀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살면 성공도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말했다. "Catch the Fun, Achieve Global Success!" "웃다보면 성공할 수 있다!"고.



SMILE

유명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표정이 밝거나 늘 웃는 인상이라는 점이다. 웃음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을 'fun'이라 할 수 있는데 잘 웃고 즐기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재능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고 했다. 무슨 일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즐겁게 웃을 수 있으면 그는 행복한 것이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며, 지금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면 가난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다. 웃음은 귀중한 무한의 자산임을 기억해야겠다.

미국의 심리학자 슈드 햄 스테드는 1일 5~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웃음이라고 했다. 1일 15초 크게 웃을 때마다 2일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가 바로 '웃음'인 것이다. 웃음은 상대방의 기분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전염 효과가 있다. 거기다 인상을 좋게 해주어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해준다. 또 웃는 얼굴을 하면 스스로 감정이 순화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잘 웃는 사람을 보면 더욱 상냥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웃고 있는 모습이 언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제부터 '웃음'이 당신의 삶에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의 언어로 무장하고 항상 웃는 얼굴을 연습하라. 진심 어린 웃음을 만들어주는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웃는 얼굴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비춰주게 한다. 또 웃으면 몸속에 잠든 에너지가 살아나 더욱 활력을 가지게 된다. 일상에 지쳐, 혹은 힘든 일로 어려울 때도 '웃음'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란다. 가끔 웃음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한다. 잘 웃지 않아 굳어진 얼굴 근육을 다시 쓰게 될 때, 함께 하는 이를 먼저 즐겁게 해 주고 자신도 웃고 있을 때,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음을 당신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글 | 이현주 ● 일러스트 | 유창운

웃음은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꾸며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종의 기술이다. 웃음을 통해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꾸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한번의 웃음이 인생을 바꾼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500번 정도 웃는 반면, 성인들은 하루에 15번 정도만 웃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이 하루 평균 7~10번 정도 웃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을 모두 합해도 1분이 넘지 않는다. 그나마 50세가 넘으면 웃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한다.

반면에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7년, 잠자는 데 23년, 일하는 데 26년, 그리고 양치질하고 씻고 화장실 가는 데 약 3년 반,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6년 7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웃는 시간이 2년 10개월 정도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웃기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을 몸과 마음의 균형으로 보았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병원은 공연장의 흥겨운 분위기

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웃을 수 있도록 원형경기장이나 공연장 근처에 있었다. 실제 하루 15초 웃으면 이틀간 수명이 더 연장되고, 하루 45초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니,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명약인 셈이다.

얼마나 잘 웃느냐가 성공의 지름길

탁월한 동기부여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의 85%가 인간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며 인간관계는 바로 얼마나 잘 웃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다. 사람을 끄는 리더를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 모두가 매우 잘 웃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웃음은 웃는 사람뿐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넘쳐흐르는 열정과 자신감을 전염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엘 앤더슨에 따르면 웃음이 긍정적이고 밝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이해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주의력을 높이며, 인지적 발달을 도와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웃음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조희시간과 종례시간에 웃음을 연습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돈 안 드는 최고의 보약 '웃음'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며 몸 상태를 편안하게 해준다. 18년간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해온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 잘 웃는 사람의 피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세포'가 많이 생성돼 있음을 알아냈다. 웃음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정신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평화를 가져다준 것이다.

또한, 웃음은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3분간 웃으면 11kcal 정도가 소모되는데, 이는 에어로빅을 5분간 한 운동량과 맞먹는다. 반면에 3분간 전력질주하면 17kcal가 소모되며, 3분간 조깅을 하면 8kcal가 소모된다. 조깅보다도 운동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처럼 '웃음'은 돈 안 드는 최고의 보약인 셈이다.

글 · 사진 | 나명선 ● 참고서적 | 인생을 바꾸는 웃음전략(뜨인돌 펴냄)

Tip Info1 ●● 성공하는 사람을 위한 웃음습관

1. 인사로 웃음생활을 시작하라

항상 웃음을 띠게 되는 순간은 바로 인사를 나눌 때이다. 웃음의 약 70%가 이때 이루어진다고 하니, 웃음인사가 웃음의 기초라 할 것이다.

2. 긍정적인 단어만을 사용하라

'용서한다. 할 수 있다. 사랑한다. 웃는다. 행복하다.' 우리는 단지 몇 개의 단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것이 말의 힘이다.

3. 칭찬으로 마음을 웃게 하라

칭찬이 어색하다면 동전 칭찬법을 배워보자. 출근 전 동전 5개를 왼쪽 호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직원을 칭찬할 때마다 동전 1개를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긴다. 매일 5개 모두를 옮기려고 노력해 보자.

4. 감사로 함께 웃어라

감사는 칭찬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만약 감사할 일이 없다면 느끼거나 사소한 일에 감사하기 꼭스럽다고 느낀다면 1분 동안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의 인사를 건네 보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번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5. 먼저 용서하라

화병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매일 아침, 미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떠올리면서 '5분 용서시간'을 갖도록 하자. 화도 누그러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6. 웃음멘토를 만들어라

잘 웃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를 웃음의 멘토로 정하자. 짜증나거나 우울할 때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웃음과 긍정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Tip info2 ●● 웃는 근육을 만드는 펜 테크닉

펜 테크닉은 웃음운동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연습법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 권할 만하다. 웃을 때 목의 여유가 없거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사용해보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how to

1. 펜이나 손가락을 치아에 물린다.
2. 가급적 안쪽 깊숙이 물리고 입술이 닿지 않도록 한다.
3. '하' 소리를 내며 끝까지 숨을 내쉰다.
4. 이 상태로 웃는 시늉을 하는데, 이때 눈도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연습한다.
5.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반복한다.

단백질 의약품 생산을 위한 세포배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회사의 특성 상 회사 내 정전상태가 지속되면 막대한 생산 차질과 함께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본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난 2004년 캐터필라 가스 발전기세트인 G3520C를 구입했다. 정전 시 비상용 전기 공급을 하는 이 발전기는 셀트리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주)셀트리온 무정전, 캐터필라 발전기가 책임져요!



은 고객이 되었다. 현재 셀트리온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최근석 과장은 한달에 한번 이곳에 들려 장비 점검을 해주고 있다. 이날도 최 과장은 발전기 운전을 담당하는 변준건 기사와 함께 장비 점검은 물론 사용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다.

“셀트리온의 경우 G3520C를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전 시 비상용으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사용되지만, G3520C의 경우 에어 콘이나 히터를 많이 작동하게 되는 하절기나 동절기 즉 피크 세이빙(Peak Saving)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입니다. 즉, 여름에 100KW를 쏜다면 20~30KW는 발전기를 가동시켜 사용하고, 70~80KW는 한국전력의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면 전기 비용이 절감되어 회사에 이득이 됩니다. 셀트리온의 경우는 2000KW급 상용발전기로 공급되었으나 현재는 비상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셀트리온의 필요에 따라 상용전과 열병합용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 지난 2005년 인천 송도에 셀트리온 건물이 완공되었다. 완공되기에 앞서 2004년 캐터필라 가스엔진 및 발전기세트인 G3520C를 셀트리온에서 구입, 설치했다. G3520C의 국내 출시 이후 최초로 성립된 계약이었기에 당시 셀트리온은 해인과 특별한 인연을 맺





무정전은 셀트리온의 최고 과제

셀트리온은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배양기술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 생산,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 생명공학회사이다. 그런 만큼 셀트리온 공장은 하루 24시간 세포배양이 이뤄지려면 적절 온도 즉, 25℃를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정전이 일어나면 배양 중인 세포가 모두 죽어버려 생산에 큰 차질을 일으킨다. 때문에 무정전은 셀트리온 공장이 건립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과제 중 하나였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해인에게 문을 두드린 것.

왕진규 이사는 “외국계 회사다 보니 세계적인 브랜드인 캐터필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며 “다만, 수입 장비다 보니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A/S였다. 하지만 해인이 캐터필라 장비에 대한 철저한 A/S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말에 신뢰를 갖

고 발전기를 구입하게 되었다”며 구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캐터필라의 가스엔진은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내구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가스엔진은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며, 안정된 출력을 요구하는 데에 연속운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열회수율이 높아 열병합 발전 시스템에 적용 가능토록 설계 되었다. 현재 G3520C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셀트리온에만 설치되어 있다. 현재 부산 지역 3군데에서 예약을 한 상태라고.

“G3520C의 특징은 가스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적게 들어 비용절감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디젤(경유) 엔진에 비해 성능 면에서 조금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디젤의 경우 16기통을 사용하는데, 이 장비에서는 20기통을 사용, 문제점을 해결해 기업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도록 했습니다.”

해인의 철저한 서비스 관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 셀트리온에서 발전기를 구입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을 때 무엇보다 장비에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달려와 A/S가 가능한지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봤다. 그래서 처음 2년 동안 최근식 과장은 수시로 셀트리온에 방문해 서비스 점검을 해주는 등 장비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또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걸쳐 셀트리온에서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괴도에 오른 지금도 한달에 한번 정기 점검을 실시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이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가장 큰 과제인 무정전을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디젤엔진 발전기를 다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스엔진 발전기는 별루일거란 선입견을 가졌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양호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보통 발전

기를 구입할 때 엔진 스타트는 좋은지, 출력 전압은 정확한지, 장비 내구성(수명)은 괜찮은지를 따지잖아요. 캐터필라는 세계에서 인정한 장비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다만, 수입 장비다 보니 A/S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정기 점검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와 점검해주는 모습에 더욱 장비에 대한 신뢰가 갑니다.”

변준진 기사는 캐터필라 장비에 만족하고 있었다. 최근식 과장은 변준진 기사에게 “20년이 지나도 처음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캐터필라 장비의 가장 큰 이점이다”며 해인 장비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그의 이런 자부심에 셀트리온에서 해인의 장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실과 바늘의 관계, 천공장비와 콤팩트사 윤준호 대리와 대영산업천공(주)

윤준호 대리는 매일을 고객과 함께 보낸다. 고객이 원하면 어디든 달려가기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를 때도 많다고. 그런 그의 부지런함에 해인 고객들은 믿음을 가지고 해인의 장비를 계속해서 찾는 것 같다. 윤준호 대리의 영업현장을 따라가 보자.

윤준호 대리의 하루는 대영산업천공에서 시작됐다. 대우천공기 DR-3600장비를 5대 보유하고 파일맨 PM1820 풀세트 천공기 1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영산업천공은 각종 건설현장에서 지하 H-PILE공압함마천공 및 무진동 저소음 트리콘비트 천공, CIP, SCW, LW 및 스위트파일항타, JSP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업체이다. 그래서 실과 바늘처럼 천공장비와 땀 수 없는 관계인 고압콤팩트사는 대영산업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 중 하나이다. 대영산업천공의 신현석 사장은 1995년 해인과 인연을 맺은 이래로 계속해서 해인의 고압콤팩트사를 구입, 사용하고 있다. 대영산업천공은 해인의 윤준호 대리를 통해 고압콤팩트사 2대를 2005년에 구입했고, 최근 새롭게 출시된 아트라스 콤팩

의 고압콤팩트사인 XRVS476CD를 추가로 구입했다. 이날 윤 대리는 XRVS476CD가 문제없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대영산업천공을 방문한 것이다. “대영산업천공은 천공분야에서는 국내에서 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콤팩트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특히 장비구입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철저하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XRVS476CD의 경우 국내 출시 전부터 해외에서 이미 그 성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영산업천공에 잘 맞는 장비라고 생각되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윤 대리가 XRVS476CD가 출시되기 전부터 저희 회사에 찾아와 이 장비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출시 전에 미리 해인의 공장으

로 데리고 가 장비를 시운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콤팩트사보다 훨씬 경제적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타사의 장비의 경우 기계식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 장비는 전자제어 TIER3 CATERPILLAR C13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효율면에서 고성능, 고연비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배출가스도 적게 배출합니다.” 대영산업천공은 친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음과 배출가스를 최소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XRVS476CD는 대영산업천공에 딱 맞는 제품이라는 확신이 든 것. 이처럼 윤 대리는 고객 입장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장비가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장비를 추천 한다.



▲ 대영산업전공에 방문한 윤준호 대리가 신모델 고크롬푸레사에 대해 신현석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현장에서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체크하는 윤준호 대리.

현장 속 능률한 해인의 장비

윤준호 대리는 실제로 XRVS476CD가 잘 가동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영산업전공의 현장으로 이동했다. 주상복합건물이 올라가기 전 한창 토목작업 중인 서울 중구 회현동 SK리더뷰 현장에는 해인에서 구입한 아트라스 콤팩사의 구 모델부터 이번에 구입한 XRVS476CD까지 4대의 고크롬푸레사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그 모습이 굉장히 능률해 보였다. 직접 장비를 점검하는 윤 대리의 모습에서 단지 판매만이 영업사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객이 장비를 구입할 때 늘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편안하고 부담 없이 고객이 해인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우리 장비를 사용할 때 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보여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순히 고객에게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파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장비는 험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간혹 문제가 발생한다. 그럴 때 바로 A/S가 이루어진다면 고객은 더욱 해인 장비에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 일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비 정상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 고객의 불만을 고스란히 듣는 사람이 바로 영업사원. 이런 상황에서 윤 대리는 최대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S팀과 돈독한 팀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윤준호 대리는 “윤 대리한테 장비를 구입하기 잘 했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처럼 고객의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미소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영업사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글 | 고정희 ● 사진 | 이순우

손발 척척 맞는 우리는 ESE팀!

지난해부터 ESE팀 내에서 서로 멘토이자 멘티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준호 과장과 최성규 대리는 손발이 척척 잘 맞는 선배배 관계이다. 그들의 인연은 2002년 퍼킨스팀에서부터 이어졌는데...

이준호 ●● 2002년도에 최성규 대리가 퍼킨스팀 서비스 담당으로 입사를 했는데, 당시 저는 같은팀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최성규 ●● 함께 퍼킨스팀에서 일할 때는 밤에 술을 마시다가도 고객이 부르면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기계의 문제는 제가, 고객의 불만은 이 과장님이 해결하는 등 서로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지금은 ESE팀에서 과거에 쌓았던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가 빛을 발하고 있다.

이준호 ●● 저는 3600 시리즈, 2000KW 이상 디젤 발전기세트를 국내·외로 영업을 하고 있고, 최 대리는 3500 시리즈, 2000KW 이하 디젤 발전기세트를 국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성규 ●● 그동안 엔지니어 부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숫기도 없었고, 사소한 것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과장님께서 함께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이준호 ●● 최 대리는 적

극적이고 끈기가 있어서 해인에서 주목할 만한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로 일할 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계의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이미 파악을 했죠.

그래서일까요? 한번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는 말이 딱 최 대리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최성규 ●● 이 과장님의 다이어리를 보면 다들 깜짝 놀라곤 합니다. 퍼킨스팀에서 근무하실 때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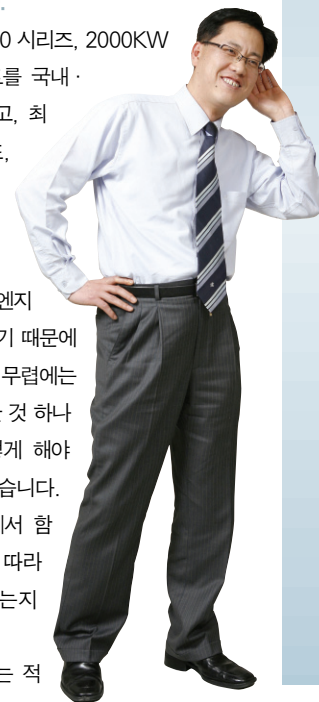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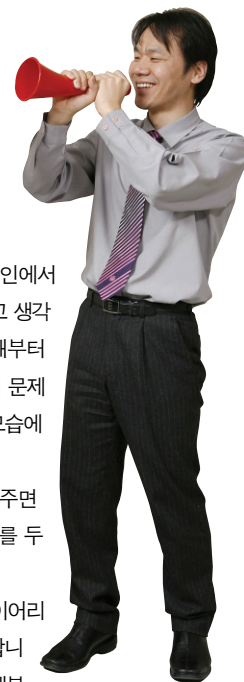
지금 ESE팀에서 일하면서까지 만났던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항상 들고 다닙니다. 또, 매일 그날 만난 고객에 관한 이야기를 일기로 쓰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이 과장님의 철저한 고객관리법을 통해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건 마찬가지겠지만, ESE팀에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 특히 두 사람은 엔지니어 부분의 어려움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했다.

이준호 ●● 저희 팀은 Industrial & LFG 담당 김성학 씨, Gas Genset 담당 김일래 씨, 태양광과 Fuel Cell 담당 최명석 씨 그리고 엔지니어 담당 김대희와 엄윤숙 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을 경우 회사 차원에서 많이 이끌어 줘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상태지만, 아직 엔지니어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성규 ●● 저도 엔지니어로 4년간만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고정희 ● 사진 | 최우정



‘등록제한’은 건설기계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이 통과됐다. 제대로 이 법률(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조, 대여, 매매, 정비, 폐기 등 모든 건설기계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이 통과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동 법률(안)에는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대여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비자주식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입법 발의한 건설기계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한 총량규제는 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 등 개별사업자들의 반발로 건교부가 ‘수급조절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한 ‘등록제한’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일부 대여사업자들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모양이 됐다. 문제는 건교부 및 국회 건교위가 수급조절위원회 설치를 통한 등록제한이라는 대안에 대한 내용

일부 대여사업자들만의
의견을 토대로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을 반대하는 쪽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을 근거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수렴 기회도 없이 일괄 상정하여 초고속으로 국회 건교위를 통과시켰다는데 있다. 이는 결국 법안 내용이 건설기계산업 전반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방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 매우 불합리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를 추진한 그 어느 누구도 이 법(안)이 건설기계산업을 15년 이상 후퇴시켰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량규제의 문제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시켜 보자는 취지의 논의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총량규제는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이라는 노동조합의 힘의 논리와 일부 대여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건설기계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가경



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취지와 산업 전체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사항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법률(안) 발의가 경영악화의 요인이 모든 이들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수 년 동안의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400~500%에 이르는 경유가격 인상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대여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가동율 하락 및 유류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건설기계의 과잉공급이라는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법률에 등록제한이나 총량 등을 규제하는 것은 건설기계가 세계 최저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또 다른 업종이나 이익집단에 의해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쳐 강제될 것은 자명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도

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제조업체를 비롯한 매매업체 등이 등록제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 법제화되었으나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최소한의 등록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조 및 매매업체의 입장이다. 등록을 제한하면 할수록 영세한 대여사업자는 도산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대형 대여사업자(지입사)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소수의 단기간 이익을 위해 산업 전체가 퇴보의 길을 걷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국내 건설기계산업은 암울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내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대부분 글로벌화된 대기업이며 생산의 80%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내수시장의 판매를 제한한다면 생산기반 자체를 해외로 돌릴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수입업체들이 국내 건설기계 내수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기계 내수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매우 커다란 시장이므로 선진 건설기계업체 대부분이 국내에 판매망을 갖추고 있으며 굴삭기 및 지

게차를 제외한 모든 기종에 대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 캐타필라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주)해인이며, 캐타필라 1개 기업의 매출액은 국내 대기업 몇 개를 합쳐야 될 정도의 글로벌 기업이다. 일본의 고마츠, 히다치, 안마, 타다노, 독일의 립헬, 푸츠마스터, 융하인리히, 미국의 존디어, 그로브, 영국의 JCB 등 대부분의 선진제품은 공급판매망이 국내에 갖춰져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시장에서 나름대로 영업을 통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제한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이므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통한 통상마찰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 대여사업자들만의 의견을 토대로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안)의 건설 경기(景氣)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율 추이,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등 건설기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철저히 뒷받침되어야 하고 수급계획 또한 향후 국내 건설기계산업의 거시적 입장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로 개정된 만큼 제조, 대여, 매매, 정비, 폐기 등 모든 건설기계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총량규제 도입이 건설기계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이 입법화됨으로써 국내 건설기계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제조업체는 물론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등 모든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조업체는 덤프, 믹서 등 자동차업체의 내수 감소와 내수의존도가 큰 CPC업체의 일정량 판매 감소, 굴삭기 업체는 등록제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자가 장비가 많은 휠로더 및 지게차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장비 회수 등 판매영업 방식은 힘들어질 것이며 개별 및 지입, 건설업체 등에 대한 차별화된 영업전략 및 내수시장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수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생산되는 장비에 대한 철저한 A/S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환경규제(배출가스, 소음 등)에 따른 운행되고 있는 자사 장비에 대한 내용 연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영업 전략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체 공동으로 대형 렌탈사 설립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여사업자의 경우 등록제한 기간 중 신규 대여사업 및 사업 확장이 불가능하고 중고장비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장비 구입 시 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대형 건설사 등의 자가 장비 보유로 인한 대여시장 축소,



외국 대형 렌탈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촉진, 번호판 장사로 신규사업자 진입 불가 등 대다수 개별 사업자 몰락은 물론 대여사업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정비업체는 단기간에는 신규장비 증가가 불가능하여 정비물량이 증가할 것이나 총 등록 장비 감소에 따라 정비물량은 감소가 예상되며 제조업체의 장비 성능 증가 및 서비스 강화로 정비물량은 지속 감소하여 결국 대형 정비업체 일부만 유지되고 소규모 정비업체는 도산이나 부품 제조업으로의 업종변경을 피해야 할 것이다. 매매업체는 중고매매 급감에 따른 대부분의 매매업체 도산이 예상되며 중고 수출업체는 몰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제조업체가 지원하거나 직영업체만 생존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는 장비임대료 인상에 따른 건설단가 인상을 피할 수밖에 없고 건설장비 수급 불안으로 빈번한 공사 진행 차질로 건설기계를 자가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는 소규모 건설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지므로 결국은 대형 렌탈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로 개정된 만큼 제조, 대여, 매매, 정비, 폐기 등 모든 건설기계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수 년 동안 잘못된 정책에 의해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던 건설기계산업인들 모두가 진정한 국가경제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지입구조 등 국내 대여사업자의 구조적 모순의 개혁 및 대여사업의 대형화,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첨단 건설기계의 보급, 대여업·매매업·정비업·폐기업 등 세계 일류 업체로의 육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전히 3D업종으로 취급받고 있는 건설기계산업이 건설기계를 배우려는 젊은층에게 꿈과 희망의 산업으로 인식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병원(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사업관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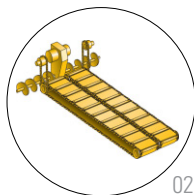


도로포장의 최강자 캐터필라 아스팔트피니셔 AP-755

캐터필라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유럽형의 아스팔트피니셔는 2005년 유럽에서 먼저 출시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에는 2007년 1월에 출시되었다. 유럽의 배기가스 기준인 EU StageII와 III를 만족하는 저소음, 저매연의 친환경 엔진을 장착했을 뿐 아니라 템퍼, 바이브레이터, 중앙집중식 그리스주입시스템, 전기식 스크리드가열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옵션을 기본으로 장착하여 운전자의 편의성 및 포장면의 품질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야간작업의 효율성과 최적의 작업환경을 위하여 일반 라이트 외에 4개의 고휘도의 제논 라이트를 기본으로 장착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위하여 유압 조절식 캐노피(위 사진참조)를 기본사양으로 채택하는 등 장비의 고급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01



02



03

01

최첨단 ACERT 기술의 CAT C7 엔진

- 터보차저와 ATAAC 냉각시스템을 갖춘 202 마력 최첨단 엔진
- 엔진 연소과정의 세 가지 핵심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시키는 캐터필라의 통합 솔루션인 ACERT 기술 적용
- 최고의 연비를 위한 분사타이밍, 분사 주기, 압력 등을 최적의 조건으로 전자 제어하는 MEUI 연료분사 시스템
- 다양한 부하와 속도에 맞는 공기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웨이스트게이트와 애프터쿨러의 온도를 이용하여 터보차저의 부스트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완전연소에 가까운 효과를 통해 연소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절감시키는 ADEM™ A4 전자제어 모듈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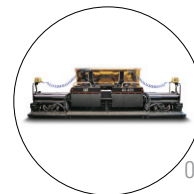
피더 컨트롤 시스템

- 합금강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강한 피더체인
- 각각 좌우 2개의 유압모터와 울트라 소닉 제어시스템의 독립적 조절
- 컨베이어의 전후진 작동을 기본사양으로 적용

03

오거 컨트롤 시스템

- 니켈합금강을 사용하여 내마모성을 크게 향상시킴
- 좌우 독립조절과 전후 회전이 가능
- 재료의 크기에 따른 재료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하 높이 조절이 가능



04



06



07



08

04

스크리드

- 15 mm 두께의 하독스400 인두판
- 전기가열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
- 포장면의 최적 다짐을 위한 고성능 템퍼와 바이브레이터를 장착
- 좌우를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스크리드의 처짐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지지 실린더 채택

05

대용량 호퍼

- 14톤의 대용량 호퍼
- 좌우 호퍼날개는 독립적으로 조종할 수 있어 운전자의 정밀포장이 가능

06

중앙집중식 그리스 주입 시스템

- 편안한 정비성을 위하여 트랙터는 물론 스크리드까지 중앙집중식 그리스 주입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전자 중심의 정비환경을 실현하였음

07

유압접이식 캐노피(기본장착)

- 국내유일의 유압접이식 자동 캐노피를 기본으로 장착
- 버튼으로 손쉽게 조작 가능하여 매우 편리함

08

야간작업용 제논 라이트 (기본장착)

- 야간작업의 효율성과 최적의 작업환경을 위하여 일반라이트 외에 4개의 고휘도의 제논 라이트를 기본으로 장착

제원

	AP-755 트랙타입	AP-600 휠타입
엔진모델	CAT C7 ACERT	CAT 3056E ATAAC
최대출력 SAE J1995	202 hp @ 2,300 rpm	173 hp @ 2,200 rpm
최고 포장속도	26 m / 분	60 m / 분
최고 이동속도	6 km/h	15 km/h
호퍼용량	14.0 톤	11.0 톤
오거직경	360 mm	360 mm
오거회전수	140 rpm	130 rpm

	AP-755 트랙타입 · AP-600 휠타입
기본포장폭	2.5 ~ 5.0m / 3.0 ~ 5.75m
인두판 가열방식	전기 / LPG
인두판 두께	15 mm
템퍼 타격회수	1,700회 / 분
진동 타격회수	3,400회 / 분

철저한 인생설계가 돈버는 첫 번째 습관!

감성
습관
재테크
레슨

부자는 어떤 행운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아주 기본적인 노력부터 시작해서 매일의 생활 습관에서의 작은 노력들을 통해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내가 몇 살 때 내 아이가 대학생이 되지?”
“내가 만일 100살까지 산다면 그때 내 아이의 나이는?”
“나는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져봐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제 얼마큼이 필요한지 예측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막연히 돈을 쓰면 안 된다. 시간이 흐를 수록 쓸 돈은 커지는데 버는 돈은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자녀에게 쓰는 사교육비가 나중에 아이의 대학등록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매주 즉흥적인 마트 쇼핑, 외식, 가족 이벤트 자금이 미래의 가난을 만들 수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은 40대 중 후반이 정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는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다.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자녀들이 성장해 생활비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인생설계를 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막연한 장밋빛 인생설계가 아닌 구체적인 우리가족 라이프사이클을 그려보고 그에 필요한 돈의 액수를 계산해본 후 지금부터 얼마를 모아 나가야 하는지 계산해 봐야 한다. 그것으로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예산을 세워 지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소비예산부터 철저하게 세워라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실천하지 못한다. 지출도 역시 막연하게 습관적이고 충동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소비예산부터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이전의 소비습관을 전제로 하면 안 된다. 미래 재무목표들을 달성할 만한 저축 재원을 떼어놓고 나머지 자금에서 소비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80만원이고 3살 자녀를 둔 3인 가족이 있다. 이 가족은 아이가 자라 집중적으로 교육자금을 써야 하기 전인 앞으로 11년 동안, 즉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를 집중적인 저축 시기로 잡아야 한다. 대략 교육자금, 유동자금, 은퇴자금 등 미래 목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5년 동안 최소 120만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5년부터 11년까지는 최소 100만원을 저축해야 목표자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선 소비를 묶어야 한다. 5년 동안은 월 160만원, 11년까지는 월 180만원으로 기초생활비부터 교육비까지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소비 예산을 짜기 위해선 먼저 필수 생활비, 교통비, 교육비 등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항목을 나눠야 한다. 또 각 항목에 필요한 최소치를 잡아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 이런 뒤 조정이 가능한 여가생활비, 용돈 등을 조정가능 비용으로 남겨두면서 역시 매월 최소치 기준을 잡아놓는다. 신용카드를 가급적이면 없애고 체크카드를 활용해 지출 계획을 초과하지 않도록 늘 강제해야 한다.

시간과 복리를 이용하라

“돈이 있어야 재테크를 하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다. 그러나 재테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다. 물론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고소득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재무설계를 해야 한다. 적은 돈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단기 투자·단기 저축보다는 중장기투자를 통해 복리효과를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 복리는 흔히 마술이라는 표현을 한다. 5천만 원을 복리로 20년간 8%로 묻어 둔다면 2억 4천 6백만원가량이 된다. 그러나 단리일 때는 1억 3천만원, 거의 절반수준이다. 30년간이라면 5억 4천만원이 넘는다. 원금의 10배가 넘는 돈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단기투자만 반복해서 운영했다면 30년이라도 1억 7천만원, 4억 가까이 이익을 앉아서 포기한 것이다. 인생은 길다. 이제 20년 30년 장기투자를 위해서도 돈을 떼어 놓아야 한다. 복리투자는 장기투자에서 유효하다. 장기 복리투자 이것이 적은 소득으로 긴 인생을 풍요롭게 준비하는 최대의 투자기회이다.

글 | 제윤경

(희망재무설계 교육본부장, <SBS 잘살아보세 우리집 재무주치의>와 <KBS 경제포커스> 고정 출연 중, 한겨레신문 재무설계 칼럼 연재 중, <아버지의 가계부>의 저자)

01_C18, 배기가스규제 EU Stage II 승인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캐터필라 영국에서 생산 중인 C18 상용 발전기에 한하여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인 EU Stage II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였다. 국내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동차, 건설기계, 산업용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고객에게도 미래에 화소식이 될 것이다. EU Stage는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배기가스 규제 중의 하나로 앞으로 강화될 국내 규제에 적용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02_고객장비에방점검 서비스 위한 'CSA팀' 출범

(주)헤인은 지난 2월 1일부로 고객 장비예방점검 서비스를 위한 CSA(Customer Support Agreement-이하 CSA)팀을 출범하였다. CSA란 정기적인 장비예방정비와 관리를 통해, 최고의 가치인 고객 안전은 물론 생산성은 최대한 유지하고,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장비관리 컨설팅 서비스로써, 현재 서비스 시행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CSA팀은 CSA를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3월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08년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소유한 장비 상태의 최적화 및 성능 극대화는 물론 고객의 장비 관리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3_철거 현장 민원 해소의 일등 공신 비산 먼지 제거기 DUSTBOSS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철거시장에 소개된 비산먼지제거기 더스트보스가 각 철거현장에 투입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 동안 대형 철거현장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비산먼지 민원사항을 깔끔히 해결해줌으로써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상당한 호평을 얻고 있다.

전문 철거 업체인 삼오진 건설 및 경남중기는 더스트보스 현장 투입 이후 장비의 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만족과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의 장비 사용에 대한 호평에 힘입어 (주)헤인과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 철거 현장마다 더스트보스를 투입하고 있다. 이는 강남구 한양아파트 철거현장을 시발점으로 현재 50동 규모의 대규모 철거 현장인 의왕시 포이주공아파트 철거 현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04_2007 헤인 6 시그마

Best GB Reward & Process Management System



(주)헤인 6시그마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로, 'Best GB Reward Program'은 프로젝트에 참가한 GB 중 가장 우수한 GB 한 명을 선정하여 1박2일의 가족 동반 여행을 제공해 프로젝트의 참여도와 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헤인은 다른 주요 계획 중 하나인 'Process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고 있다. Project Control 기간 동안, 프로세스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 현재 수작업 형태의 타겟 측정결과 등의 수집 및 보고에서 탈피, 사내 전산망에 보다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실시간 process 상황 체크가 가능한 웹 형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05_(주)헤인 고객지원본부/부품관리팀 중고부품 판매 개시

(주)헤인 고객지원본부/부품관리팀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장비를 대상으로 중고부품 및 REBUILT 부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많은 고객들에게 경제적 이익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Rebuilt 된 구성품을 보유하고 있어 장비의 운송 시간 및 수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임대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실히 다질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재고로 운영중인 장비 모델로는 D11N, D10N, D9N, D6H, 245B, 330B/C, 988B, 980C/G, 966G/972G,

CS-531 등이 있으며, 매월 업데이트 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 및 제고 문의 | 각 지사/사무소 담당자 및 고객지원본부 서학원 과장 Tel : 041-559-1562 / H.P : 011-9996-7495



06_'CAT 포장장비 고객초청행사' 실시

장비사업본부/포장장비팀에서는 지난 1월 23일 천안 공장에서 올해 새롭게 선보인 캐터필라 도로포장장비 고객초청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총 100여명이 넘는 고객이 초청되었다. 오전에는 실내 교육(장비, 서비스 및 금융)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장비 전시 및 시범 포설 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헤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식사가 제공되었으며 포장 공사에 유용한 귀중한 선물들이 모든 초청 고객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행사를 통하여 AP-755 피니셔(2대), CS-533E 진동로울러(2대), 그리고 CB-434D 진동탄넬로울러(1대) 등 총 5대의 계약고를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참석한 모든 고객들이 운전자와 운영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캐터필라의 설계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오래 서 있는 남성, 하지정맥류 조심하라!

감성
음
헬스 · 웰빙
테크

최근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해서 다리의 혈관이 튀어나오는 질환을 의미하는 '하지정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칫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질병인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들어 오래 서서 일을 하거나 과격한 운동으로 때문에 다리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바로 다리의 혈관이 튀어나오는 질환을 의미하는 '하지정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정맥류는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순환되는 피가 혈관 판막 기능 이상으로 다리 쪽으로 역류되어 혈관이 확장되는 질환이다. 다리 정맥 속에 흐르는 피는 중력과 반대방향으로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다리 정맥의 혈액을 끌어올리는 판막이나 장딴지 근육의 활동에 이상이 생기면 올려 보내려던 혈액이 아래로 쏟아진다. 이 때문에 혈관이 부풀고 피부 위로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구불구불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1년 전부터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며 운동을 해 온 김모 씨(42). 김 씨는 얼마 전 운동 뒤 샤워를 하다 발등과 다리에 심하게 튀어나온 혈관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 검진 결과 김 씨는 하지정맥류 3기로 진단되었다. 김 씨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러닝머신을 한 시간씩 뛰었는데 그로 인해 경미했던 하지정맥류 증상이 악화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하지정맥



류가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마라톤이나 러닝머신 등 중력방향으로 진행되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상인들의 경우에는 달리기를 할 때 장딴지근육의 수축 이완작용이 극대화 되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정맥혈들이 판막기능 저하로 역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중력으로 인해 다리 쪽으로 피가 몰릴 수 있는 운동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다.

수영, 요가 등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이 증상에 도움

그러면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아예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 대답은 'NO'다.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아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종아리 근력이 약해져 정맥류가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 운동 시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고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점을 명심하자.

정맥류 환자들은 마라톤, 러닝머신 달리기 등의 과격한 운동 대신 자전거 타기나 수영, 요가 등 다리 쪽으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리를 햇볕이나 사우나 등에 오랜 시간 노출하는 것도 혈관의 팽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그리고 잠을 잘 때나 누워 있을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유도하도록 한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경화요법과 레이저로 가능하다. 경화요법은 피부 표면에 얇게 자리하고 있는 정맥에 경화제를 주입하여 정맥이 피부에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걸리고 간단한 시술이며 치료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레이저요법은 역류가 일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표재정맥과 심부정맥 사이의 정맥을 레이저로 제거해 근본원인까지 치료하는 방법이다. 정맥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비교적 가벼울 때 약물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 계속 방치하면 정맥염이나 피부궤양과 같은 합병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 혈관이 보기 싫을 정도로 튀어나오거나 거미줄처럼 비치는 경우, 혹은 통증이나 저린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칠 정도라면 하지정맥류 치료를 고려하는 편이 좋다.

글 | 전해원 ● 도울말 | 김호찬 미래항장외과 원장(www.miraesurgical.com)

독자 나눔터

●● 남편이 중장비 사업을 한다는 친구의 집에서 얻어와 처음 만난 '헤인'. 첫 장에 어쩌나 감동 깊은 글이 있던 지요. 덕분에 사보를 얻어 와서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나날이 번창하는 헤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주공아파트 103동 504호 **안은자** 님

●● 저는 로더 운전기사입니다. 사보를 우연한 기회에 접하여 얻어 보고 있지만 유익하고 알찬 내용 항상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헤인이 되십시오. 파이팅!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6-9 번지 2층 **임철수** 님

●● 2007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근심 걱정 없이 하시는 일들과 원하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헤인을 통해서 다양한 중장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의 습득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86번지 푸른마을 116동 902호 **김정식** 님

●● 사보에 갈수록 아름다운 내용들만 수록되는 것 같아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꿈과 희망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요'란 칼럼에서 얻은 정보로 아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23번지 라파즈 한라시멘트(주)신기공장 보안실 **임기철** 님



▲ CAT시계 · 만보기/볼펜세트

문의 | **윤지연**(jyyoon@haein.com) 02-3498-4634

사보에 대한 소감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사보 <헤인> 다음호 독자 나눔터에 사연을 게재해드리고,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고객지원본부/CSA팀

사원

박희숙

파워시스템사업본부/ESE팀

대리

최명석

자녀출생을 축하합니다

영남지사

대리

하명봉

동부지사

대리

박찬표

6시그마팀

과장

송선미

입사를 축하합니다

경영기획본부/경영기획팀

사원

배상원

고객지원본부/기술서비스팀

사원

강석인

고객지원본부

사원

김명희

중부/호남지사

사원

김미라

동부지사

사원

조남종

승격을 축하합니다

파워시스템사업본부

수석부장

정순택

경영기획본부/경영기획팀

차장

박상울

마케팅사업본부/장비마케팅팀

차장

정호영

영남지사

과장

신병식

6시그마팀

과장

하계수

동부지사/제천사무소

주임

김준철

중부호남지사

대리

김태형

영남지사/포항사무소

주임

박영범

고객지원본부/엔진서비스팀

대리

유성룡

마케팅사업본부/장비마케팅팀

대리

원종식

고객지원본부/부품관리팀

대리

이준현

마케팅사업본부/장비마케팅팀

대리

장효덕

파워시스템사업본부/ESE팀

대리

황정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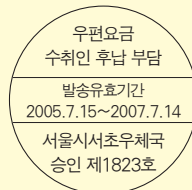
지난호 퀴즈 정답

5	6	2
9	1	7
3	8	4

우 편 엽 서

보 내 는 사 람

□ □ □ - □ □ □



(주)헤인 사보편집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애 독 자 카 드

● 위의 그림을 아래 그림에 맞게 재배열해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빈 칸에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여 적어 주세요.

5		

● 독자 나눔터에 실고 싶은 사연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정성스러운 사연을 적어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